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 개입 관련 “도 넘은 부분 자중하겠다”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감

“입장 표명 시 협의 거치고 있어 7월~8월 ‘가계대출 쏠림’ 경우 ‘銀 연내 관리 요청’ 의도로 말한 것”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엔 답변 아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간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겠다”면서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뤄진 내용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와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는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입장

표명 시 정부, 금융위, 금감원 경제팀이 함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하며 월권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감독 행정 범위 내에서 과

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은행에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추진’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엇갈렸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법 개정은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기업들이 ‘배임죄’를 우려하고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진행)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상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오전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

정했다.

검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이 수사 전에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혹,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감 때마다 묻는데, 없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PF 부담 지속… “추가 손실 가능성”

8개사 중 3곳, 2분기 영업익 적자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손비용 부담 ↑
중·후순위 비중 72%… 신용도 하향 전망

중소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PF 투자건들로 인한 부실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금

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 자본이 1조원 이상 3조원 미만의 증권사 8개사(한화투자증권·유안타증권·iM증권·BNK투자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증권·교보증권·신영증권) 가운데 3개사가 2분기에 영업익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형증권사들과 달리 중소형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증권은 2분기에만 부동산PF 관련 1509억원 규모의 총당금을 적립했고 한

화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각각 289억원, 414억원의 총당금을 쌓았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비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종투사 대비 고위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 종투사의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비 종투사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추가 손실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실시한 부동산 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 계획 추진 과정에서 추

가 손실 발생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1차 평가 대상 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2차 평가 과정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하향 또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현재 중소형 증권사들이 인수한 부동산PF 물량 중 위험성이 큰 중·후순위 비중이 72%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중·후순위 비중(3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앞서 올해 상반기 나이스신용평가는 SK증권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한 바 있으며 신용등급이 ‘A’인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케이프투자증권에 ‘부정적’ 전망을 책정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통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종투사가 이미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비 종투사의 경쟁적인 진출로 경쟁 강도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노벨상·경영권 분쟁’ 테마주 열풍… 급등락 주의보

출판기업 ‘단기적 관심’에 급등락 추세
고려아연 등 신고가 경신… 변수 존재

최근 노벨상, 경영권 분쟁 등에 관련한 ‘테마주’들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벤트성이 짙은 주가 흐름인 만큼 급등·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 하던 예스24가 3거래일 오름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2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보였지만 3거래일에는 5.55% 오르면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후 4거래일 차에는 11.43% 급락했으며, 이날도 6.58% 내림세를 보였다.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1.66% 오르기는 했지만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다음 날부터 21.97%, 8.77%씩 크게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책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한 1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책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출판 기업들의 주가가 신드롬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단기적인 관심이 쏠린 탓에 급등락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노벨상 테마주’로 급등했던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예림당 등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은 ‘경영권 분쟁 테마주’

로도 분류되면서 ‘더블 테마주’에 등극한 종목이다. 다만 2대 주주인 대명소노 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전의 전쟁’ 1라운드를 마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가도 널뛰기를 반복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51.21% 올랐다.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 15일에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더불어 같은 기간 영풍 정밀의 주가도 211.61% 올랐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만큼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에 발생한 ‘시간 주가 급락 미스터리’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 여부’ 조사를 요청하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과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14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당일 최고가인 82만원을 터치했지만, 이후 두 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인 만큼, 고려아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한 상황이었음에도 직전 거래일 증가보다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이 종료됐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 19 이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테마주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욕구도 커져 있는 상태”라며 “테마주들은 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원상복귀하는 경향이 크다. 이 과정에서 주가 급락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화투자증권

인니 ‘칩타다나證’ 인수

한화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증권 인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칩타다나증권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 계열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금융사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의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동남아시아 주요국 금융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000만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데다 평균연령도 29.7세이다. OECD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하기도 한 만큼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협업 관계를 유지해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기자